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눈썹재기, 벼락닫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 바로 한옥의 창 이름인데요. 재미있는 이름만큼 특별하게 쓰였던 창입니다. 이 창들은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 둘을 포함해서 인상 깊었던 창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문 옆에 작게 달린 창이 보이시죠? (청중의 대답을 듣고) 눈썹재기창인데, 창이 작은 것을 눈썹에 비유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출입문 옆이나 다른 창 옆 벽면에 설치하여 큰 문을 열지 않고도 밖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어서, 주인들이 노비들의 동정을 낚시 살피는 데도 쓰였다고 합니다. 작은 크기 덕분에 겨울철에 열 손실을 막으면서 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은 벼락닫이창입니다. 창 윗부분에 돌쩌귀를 달아 방 안에서 밖으로 창을 들어 올려 열어서 들창으로도 불립니다. 창을 밀었다가 손을 놓으면 창이 아래로 떨어져 닫혀서 버팀쇠나 막대를 꺾어 고정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내외가 엄격했던 사대부가에서는 직접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면서 창을 살짝 들어 올려 바깥에 온 손님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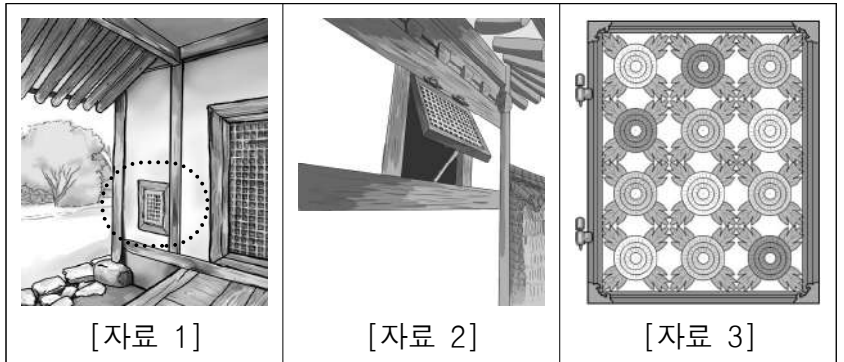
지금까지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된 창을 보셨는데요. 한옥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창도 있습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창에 새겨진 꽃무늬가 보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꽃살창은 입체적 문양과 선명한 색채로 인해 웅장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창인데, 주로 궁궐이나 사찰의 정면 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꽃살창에는 연꽃이나 국화 등의 꽃을 새겨 넣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늬의 배치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무늬와 무늬 사이의 여백까지 고려한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옥의 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로부터 창은 방과 세상,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여 한옥에 개방감과 멋을 더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옥에 사용된 창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②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③ 발표 주제와 관련된 명칭을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썹재기창의 크기와 위치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벼락닫이창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③ 내부의 노출을 줄이면서 외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창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꽃살창의 무늬가 상징하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⑤ 궁궐이나 사찰에 꾸밈새를 더하기 위해 사용했던 창의 무늬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방식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1: 그럼 벼락닫이라는 창의 이름은 창이 떨어져서 닫히는 속도가 벼락같이 빨라서 붙여진 이름이겠구나.

학생 2: 한옥의 여닫이창과 벽의 이음새에 달린 쇠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돌쩌귀인지 궁금하네.

학생 3: 예전에 고궁에 갔을 때 꽃무늬가 새겨진 창이 있었는데 그게 꽃살창이었구나.

-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제시된 정보를 통해 기존 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소할 방안을 생각하며 듣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듣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듣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듣고 있다.

[4~7] (가)는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작성된 학생의 글이며, (나)는 (가)를 읽은 학생회 학생들의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게시판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반 ○○○입니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애쓰는 학생회 운영진에게 감사드리며 체육대회 운영에 대한 건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 체육대회에서 학급 대표 학생이 출전하는 종목은 농구, 축구, 배드민턴, 탁구입니다. 이는 주로 운동 능력이 좋은 친구들에게 유리한 종목입니다. 그런 이유로 반 친구들끼리 출전 선수를 결정할 때도 이 점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반에는 운동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친구도 있고, 부상으로 인해 경기 참가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학생들의 성취감과 단합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소외됨 없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반 학생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대회 운영 종목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신체적인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장기와 이 스포츠(e-sports)를 체육대회에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두 종목은 부상이나 운동 능력 등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경기가 가능합니다. 두 종목이 모두 채택된다면 좋겠지만, 운영 여건상 모두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장기보다는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선호하는 이 스포츠를 채택해 주십시오. 이 스포츠는 팀을 짜서 협력하는 경기도 있으며 국제 대회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나 이 스포츠가 신체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종목이 아닌데 체육대회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종목이 추가된다면 체육대회는 누구나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댓글을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의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학생 1: 오늘 오후에 학생회 게시판에 올라온 글 다들 봤지?
 학생 2: 응. 봤어. 현재 체육대회 운영 종목으로는 학급의 모든 친구가 참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장기나 이 스포츠 같은 종목을 체육대회에 추가해 달라는 건의였어. 두 종목을 체육대회 종목으로 추가할지 회의해 보자.
 학생 3: 좋아. 그런데 장기는 반별 토너먼트 형태로 경기를 운영하기엔 한 경기당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학생 1: 그러게. 또 일대일로 진행되는 경기니까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서 체육대회의 취지에도 안 맞아.
 학생 3: 그렇다면 이 스포츠는 어떤 것 같아? 이 스포츠도

체육대회 운영 종목으로 적절할지 모르겠어.
 학생 2: 운영 종목으로 적절한 것 같아. 스포츠는 경쟁과 유희성이 있는 신체 운동 경기를 총칭하는 말이고, 이 스포츠도 신체 일부를 활용해서 경쟁하고 유희성을 추구하는 활동이니까.
 학생 1: 그렇구나. 이 스포츠를 할 때 농구나 축구처럼 전략도 필요하고 협동도 잘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긴 해.
 학생 2: 맞아. 그리고 게시판 글을 읽고 신문 기사를 찾아봤는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 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거라고 하더라.
 학생 1: 응.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가 돼. 요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프로 게이머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만해. 체육대회가 학교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만큼 학생들의 흥미와 특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잖아. [A]
 학생 3: 그래. 우리 반만 해도 프로 게이머를 희망하는 친구가 다섯 명이나 있어. 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다.
 학생 2: 그럼 이 스포츠만 체육대회 종목으로 추가하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 스포츠를 학교 체육대회 종목으로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
 학생 1: 좋아. 먼저 나는 이 스포츠가 다소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아 이 점이 마음에 걸려.
 학생 3: 그 점은 게임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폭력성이 없고 협동심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아. 그것보다도 나는 대부분의 이 스포츠가 경기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걱정돼. [B]
 학생 1: 지금 체육대회 종목에도 시간 제한이 없는 게 있어. 탁구나 배드민턴이 그렇잖아. 이 종목들을 체육대회에서 어떻게 운영했었는지 알려 줄래?
 학생 2: 그 종목들은 본선만 체육대회 당일에 하고 예선전은 그 전날까지 미리 치르고 있어. 이 스포츠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아.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그럼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주에 있을 학생회 정기 회의 시간에 다시 해 보도록 하자.
 학생 2, 3: 응. 또 봐!

4.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 독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②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③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공식적인 글쓰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언어 예절을 지킨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5. (가)의 흐름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인사말 및 자기소개 → ㉠ 문제 상황 제시 → ㉡ 해결 방안 제시 → 문제 해결의 기대 효과 → 끝인사

- ① ㉠과 관련하여 체육대회의 개최 취지를 확인하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 관련하여 현재 체육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목의 특성을 언급하며 문제 상황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과 관련하여 두 종목을 선택하게 된 근거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경기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근거로 삼아 제안한 경기 종목들의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있다.
- ⑤ ㉡과 관련하여 현재 체육대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운영 종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6. (나)의 ‘학생 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언급한 운영 종목 다양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논의해야 할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에서 현재 체육대회 종목 구성의 한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
- ③ (가)에서 이 스포츠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운영 종목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있다.
- ④ (가)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기 종목 중 한 종목으로 논의의 범위를 줄이고 추가적인 논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에서 국제 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정보를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자료를 탐색한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7.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학생 3’은 ‘학생 1’의 발언을 반영하며 자신이 제시한 의견을 보충하고 있다.
- ② [A]: ‘학생 3’은 ‘학생 1’의 발언에 동의하며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A]: ‘학생 3’은 ‘학생 1’의 발언을 일부 긍정하며 자신의 의견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 ④ [B]: ‘학생 1’은 ‘학생 3’의 발언을 구체화하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⑤ [B]: ‘학생 1’은 ‘학생 3’의 발언이 지닌 문제점을 제시하며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8~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써서 학교 신문에 실으려 함.

○학생의 초고

꼬불꼬불 꼬들꼬들 맛있는 라면이지만 자주 먹기는 주저하게 된다. 바로 나트륨 때문이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수분량을 조절하고 신경의 신호 전달을 돕고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혈압, 뇌졸중, 심장 질환, 위암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매우 많은 편인데 주로 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같은 가공식품을 통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이다.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있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게 해 준다. 제품에 있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에서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나트륨 단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QR 코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뿐만 아니라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저나트륨 식품을 먹거나 고나트륨 식품인 치킨, 튀김, 만두, 찌개, 염장 식품(배추김치, 젓갈, 피클, 장아찌 등)을 적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거나 국, 찌개, 국수, 라면 등의 국물은 적게 먹고, 외식할 때는 음식을 짜지 않게 해 달라고 주문하고 소스는 따로 주문하는 방법도 있다.

[A]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다하게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는 나트륨이지만 ‘일주일만 싱겁게’라는 말을 떠올리며, 오늘부터 덜어 내고 실천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8.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나트륨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를 언급해야겠어. ㉠
-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겠어. ㉡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의 도입 과정을 설명해야겠어. ㉢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의 효율적 측면을 부각해야겠어. ㉣
-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의 종류를 언급해야겠어. ... ㉤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통계 자료

ㄱ-1. 한국인의 연령별 1일 나트륨 섭취량

연령(세)	나트륨 섭취량 (mg/일)
12-18	3,287
19-29	3,458
30-49	3,763

WHO 권고 섭취량

ㄱ-2. 영양성분 표시 확인 여부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

확인 여부	나트륨 섭취량 (단위: mg/일)
확인하는 사람	3,256
확인하지 않는 사람	3,402

ㄴ. 전문가 인터뷰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비만의 위험도가 성인은 1.2배 높아지는데, 청소년은 무려 1.8배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나트륨 과다 섭취는 뼈 약화, 호흡기 질환, 키 성장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발색제, 보존제와 MSG, 방부제, 베이킹 파우더 등의 식품 첨가물에도 나트륨이 들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ㄷ. 신문 기사

식품의 나트륨 함량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와 영양성분 표시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쉽게 비교할 수 있지만, 현재 비교표시 대상 식품은 유당면류, 국수, 냉면, 햄버거, 샌드위치에 국한된다. 반면 영양성분 표시는 나트륨 함량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영양성분 표시 대상의 범위가 과자, 아이스크림류, 면류, 햄류, 소시지류, 빵류 및 만두류 등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보다 훨씬 넓다.

- ① ㄱ-1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고 섭취량보다 많다는 내용으로 2문단을 구체화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나트륨 과다 섭취가 성인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내용을 1문단에 추가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대상 식품을 3문단에 추가한다.
- ④ ㄱ-2와 ㄴ을 활용하여,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근거로 4문단에 제시한다.
- ⑤ ㄱ-2와 ㄷ을 활용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로 4문단에 제시한다.

10. 다음은 학생이 [A]를 고쳐 쓰는 과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 점검 [A]에는 (㉠)해야겠어.

고친 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는 나트륨이지만 ‘일주일만 싱겁게’라는 말을 떠올리며, 오늘부터 나트륨을 덜어 내고 나트륨 줄이기를 실천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① 의미가 중복되는 단어가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니 이를 추가
- ② 의미가 중복되는 단어가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주요 개념과 관련된 설명이 부족하니 이를 추가
- ③ 의미가 중복되는 단어가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내용 사이의 연결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으니 지시어를 추가
- ④ 글의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담화 표지가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문장에 필요한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니 이를 추가
- ⑤ 글의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담화 표지가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가 부족하니 이를 추가

11.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음운 변동에는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이 있는데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변화하기도 한다. 분절 음운인 자음과 모음은 모여서 음절을 이루는데,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음절의 유형은 크게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으로 나눌 수 있다. [자료]의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음운의 개수 변화와 음절의 유형을 탐구해 보자.

[자료]

- 책상에 놓인 책을 한여름이 지나서야 읽기 시작했다.
- 독서를 즐기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맞는 책을 골라야 한다.

- ① ‘놓인[노인]’은 탈락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줄었으며, [노]는 음절 유형이 ‘자음+모음’이다.
- ② ‘한여름[한녀름]’은 첨가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늘었으며, [녀]는 음절 유형이 ‘자음+모음’이다.
- ③ ‘읽기[일끼]’는 탈락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줄었으며, [일]은 음절 유형이 ‘모음+자음’이다.
- ④ ‘독서[독써]’는 첨가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늘었으며, [써]는 음절 유형이 ‘자음+모음’이다.
- ⑤ ‘맞는[만는]’은 교체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는 변동이 없고, [만]은 음절 유형이 ‘자음+모음+자음’이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자인 소쉬르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언어라고 해서 이 보편 법칙을 벗어날 리가 없다.’라고 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기도 하는데 이를 언어의 특성 중 역사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언어의 역사성을 의미와 형태 측면에서 살펴보자.

단어의 의미 변화 양상에는 의미의 확대, 축소, 이동이 있다. 의미 확대는 단어 본래의 의미보다 그 뜻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의미 축소는 본래의 의미보다 그 뜻의 사용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서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먼 다른 의미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를 ㉠의미 이동이라고 한다.

단어의 형태 변화는 ㉡음운의 변화로 인한 것과 유추로 인한 것 등이 있다. 중세 국어의 음운 중 ‘·’, ‘△’, ‘뽕’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소실되었는데, 이에 따라 단어의 형태도 바뀌게 되었다. ‘·’는 첫째 음절에서는 ‘ㅏ’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ㅡ’로 주로 바뀌었으며 ‘△’는 대부분 소실되었고 ‘뽕’은 주로 반모음 ‘ㄱ/ㅌ’로 바뀌었다. 한편 유추란 어떤 단어가 의미적 혹은 형태적으로 비슷한 다른 단어를 본떠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오다’의 명령형은 ‘오다’에만 결합하는 명령형 어미 ‘-너라’가 결합한 ‘오너라’였으나, 사람들이 일반적인 명령형 어미인 ‘-아라’가 쓰일 것이라고 유추하여 사용한 결과 현재에는 ‘-아라’가 결합한 ‘와라’도 쓰인다.

[A] 이와 같은 역사성뿐만 아니라 언어의 특성에는 언어의 내용인 ‘의미’와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인 ‘말소리’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자의성, 말소리와 의미는 사회의 인정을 통해 관습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결합은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약속이라는 사회성, 언어를 통해 연속적인 대상이나 개념을 분절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분절성 등이 있다.

12.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무지개’의 색을 일곱 가지 색으로 구분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 대상을 분절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겠군.
- ② 여러 사람들이 ‘소리 없이 빙긋이 웃는 웃음’을 ‘미소’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와 말소리가 관습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겠군.
- ③ 동일한 의미의 대상을 한국어로는 ‘개’, 영어로는 ‘dog’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이겠군.
- ④ ‘바다’의 의미를 ‘나무’라는 말소리로 표현하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언어가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겠군.
- ⑤ ‘차다’라는 말소리가 ‘(밭로) 차다’, ‘(날씨가) 차다’, ‘(명찰을) 차다’ 등 다양한 의미에 대응하는 것은 연속적인 개념을 언어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는 것이겠군.

13. <보기>는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학생이 수집한 자료이다. ㉠~㉣ 중 윗글의 ㉠과 ㉡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3점]

— <보 기> —

-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인데 예전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나타냈고, 예전에도 ‘어리다’의 형태로 쓰였다. ㉠
- ‘서울’은 ‘나라의 수도’와 ‘한반도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나라의 수도’만을 의미했고, ‘서블’의 형태로 쓰였다. ㉡
- ‘싸다’는 ‘비용이 보통보다 낮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예전에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냈고, ‘싸다’의 형태로 쓰였다. ㉢
- ‘마음’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뜻하는 단어인데 예전에는 이와 함께 ‘심장’을 의미하기도 했고, ‘므슴’의 형태로 쓰였다. ㉣
- ‘서로’는 ‘짝을 이루는 상대’라는 뜻으로, 예전에 ‘서르’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사가 ‘-로’로 끝나는 것에서 추측하여 사용한 결과 ‘서르’는 ‘서로’로 변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 선생님, ‘-에요’와 ‘-예요’는 어떻게 구별하여 쓰면 되나요?

선생님 : ‘-에요’는 설명·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는 것입니다. ‘-예요’는 ‘-이에요’의 준말로,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어요.

학생 : 네. 그런데 ‘너는 어디에 있니?’에 대한 대답으로 ‘교실예요.’처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맞춤법에 맞는 표현인가요?

선생님 : 네, 그때의 ‘-에요’는 처소의 부사격 조사 ‘에’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것이므로 맞춤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 A : 책을 어디에 두고 왔니?
B : 집().

2. 여기는 제가 갔던 식당이 아니().

3. 그때 그를 도와준 건 이 학생().

학생 : 1번은 (㉠), 2번은 (㉡), 3번은 (㉢)입니다.

선생님 : 모두 잘 이해했네요.

- | | ㉠ | ㉡ | ㉢ |
|---|----|-----|-----|
| ① | 에요 | 에요 | 이에요 |
| ② | 에요 | 에요 | 예요 |
| ③ | 에요 | 예요 | 이에요 |
| ④ | 예요 | 이에요 | 예요 |
| ⑤ | 예요 | 에요 | 이에요 |

15.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만을 [예문]에서 고른 것은?

<보 기>

[자료]

보다¹ 「동사」
 「1」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2」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
 「3」 책이나 신문 따위를 읽다.
 보다² 「부사」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
 보다³ 「조사」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문]

〔 그는 그 책을 처음 보다. ㉠
 그는 그 책을 처음보다. ㉡
 그는 나 보다 두 살 위이다. ㉢
 그는 나보다 두 살 위이다. ㉣
 그는 자기부터 보다 용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
 그는 자기부터보다 용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함을 의미한다. 우연히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또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소설을 기초로 하는 영화가 2차적저작물이 되려면 영화의 사건 구성과 전개, 등장인물의 교차 등이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저작물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 근대 소설을 현대 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으로 2차적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소설을 원저작물로 하여 이를 각색한 후 영화로 제작한다면 이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된다.

만약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원저작물과는 다른 독립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차적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있다.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구매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독립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나)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 나눌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로,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라도 유족 등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양도가 가능하다. 이때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만약 누군가 원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저작자 허락 없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즉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적저작물이 만들어지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

용하려는 사람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원저작자에게 원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양도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원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 2차적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 또 다른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소설을 각색한 2차적저작물인 영화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저작물인 연극을 제작한다고 할 때, 연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2차적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을 구분하고 있다.
- ② (가)는 예시를 활용하여 2차적저작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차이점을 밝히며 저작권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별하고 있다.
- ④ (나)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법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2차적저작물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17.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저작권권은 저작자 사망 시 유족에게 양도되어 보호받는다.
- ②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된다.
- ③ 원저작물을 수정한 것이라면 복제물에 가깝더라도 2차적저작물로 간주할 수 있다.
- ④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저작물과 유사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18.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저작자와 ㉡를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다를 수 있다.
- ② ㉢은 ㉠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으로 본다.
- ③ ㉡과 ㉣은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④ ㉣은 ㉠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 ⑤ ㉡를 작성할 때는 ㉢과 달리 ㉠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19. (가)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으므로
- ②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창작하였으므로
- ③ 원저작물에 없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 ④ 원저작물에 비해 예술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 ⑤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지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20. (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A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 기존 가요를 편곡하였고 편곡한 곡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A의 친구는 기존 가요의 저작자인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편곡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해 주었다. A는 편곡은 B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C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평소 관심 있던 외국 영화의 한글 자막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 관련 웹 사이트에 올렸다. 그런데 영어 자막을 번역하여 이 한글 자막을 작성한 D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C에게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D가 영어 자막의 저작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한글 자막으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C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단,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저작권은 없다고 가정하고, 주어진 상황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B는 A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군.
- ② 영어 자막의 저작자는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군.
- ③ 기존 가요와 영어 자막은 원저작물로 볼 수 있겠군.
- ④ A는 C와 달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겠군.
- ⑤ B와 D는 모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것이겠군.

21.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류(分類)할
- ② 변별(辨別)할
- ③ 배분(配分)할
- ④ 판별(判別)할
- ⑤ 해석(解釋)할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과연 행복한가? 현대 사회에서의 행복에 대해 고찰한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아보자.

프롬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인간관을 이해해야 한다. 프롬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파악했다. 그에 따르면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불안과 고독을 느낀다. 이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이다. 프롬은 인간은 세계와 합일을 이루고자 하며, 이러한 열망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소유적 실존양식과 존재적 실존양식으로 구분하고 어떤 실존양식을 따르는지에 의해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먼저 ㉠ 소유적 실존양식은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소유적 실존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소유에 대한 탐욕을 느낀다. 자신과 세계와의 합일이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롬에 따르면 이러한 탐욕은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욕구와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한 폭력의 욕구,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소유적 실존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프롬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유를 통해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는 집착적 욕망을 비판했다. 프롬이 보기에 이러한 욕망에는 포화점이 없다. 이미 소유한 것은 더 이상 충족감을 줄 수 없으며, 소유를 통해서만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외로움은 극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롬은 이러한 소유적 실존양식이 아닌 ㉡ 존재적 실존양식으로 살아갈 것을 제안했다. 존재적 실존양식은 소유에서 벗어나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이다. 프롬은 세계와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생산적’이라는 것은 쓸모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롬은 시를 읽고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능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존재적 실존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고 느끼므로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 대해 호의적이다. 이때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우려 하는데, 프롬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궁극적 행복이라 보았다.

한편 프롬에 따르면 두 실존양식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과 지식·사상 등이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소유적 실존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되지만 존재적 실존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이 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프롬은 현대 사회에서의 행복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을까? 프롬이 보기에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통한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누리고 있지만,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끝없는 소비를 조장하여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소유지향적인 사회이다. 프롬은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과 같은 위기는 개인이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의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존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롬은 무한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고찰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휴머니스트로 평가받는다.

22.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프롬은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했는가?
- ② 프롬은 실존양식에 따라 학습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았는가?
- ③ 프롬은 동물과 달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 ④ 프롬은 사회의 주된 실존양식을 결정짓는 요인을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 ⑤ 프롬은 존재적 실존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이 타인에게 호의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23. 다음은 A와 B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내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행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 없이 어떻게 살겠어? 또 난 얼마 전에 최신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행복했어. 이처럼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B: 그 문제에 대해서 프롬은 [㉠]고 이야기를 했어.

- ① 소유물은 소유하고 있는 동안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하므로 소유를 통한 행복이 필요하다
- ②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유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욕망은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
- ③ 소유를 통해 만족감을 얻거나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는 집착적 욕망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모든 소유의 방식을 부정해야 한다
- ④ 생존을 위한 소유는 필요하지만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태도는 세계와의 대립을 유발하므로 행복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 ⑤ 소유를 통한 행복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처음 소유했을 때의 만족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유도 필요 없다

2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소유에 대한 탐욕은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 ② ㉠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소유의 충족감을 얻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 ③ ㉡에서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다.
- ④ ㉡은 상실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
- ⑤ ㉠과 ㉡은 모두 일상의 사물과 관념적 대상에 적용되는 삶의 방식이다.

2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인간의 본질인 이성이 탁월하게 실현된 상태가 덕이며, 덕이 구현된 상태가 행복이다. 행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하지만 이것은 찰나이며 지나칠 경우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에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행복이다. 이때 인간의 덕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 개발되므로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 마지막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철학자로서의 행복이며, 최고의 행복이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행복을 함께 구현해야 한다. 행복이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덕의 실현이 습관화됐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므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일생에 이룩한 인격적 성숙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① 프롬과 <보기>는 모두 인간의 행복은 사회의 영향을 받다고 보았군.
- ② 프롬과 <보기>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군.
- ③ 프롬은 궁극적인 행복이 내면의 능동적인 작용을 통해, <보기>는 최고의 행복이 이성적 사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군.
- ④ 한 인간이 행복한지 알기 위해서 프롬은 세계와 합일을 이루었는지를, <보기>는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군.
- ⑤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프롬은 행복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보기>는 지나치지만 않으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된다고 보았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께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은덕을 어찌 다 갚사오리 <제1수>

네 아들 효경 읽더니 얼마큼 배웠는가
내 아들 소학은 모래면 마치고도다
어느 때 이 두 글 배워 어질 것을 보려노 <제7수>

㉠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 나서 옳지곧 못하면
마소를 갖 고깔 씌워 밥 먹이나 다르라 <제8수>

팔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받치리라
나갈 데 계시거든 막대 들고 좇으리라
향음주(鄉飲酒)* 다 파한 후에 되셔 가려 하노라 <제9수>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 좀 매어 주마
울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제13수>
- 정철, 「훈민가(訓民歌)」 -

* 향음주: 마을에서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

(나)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여섯 채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보통 네댓은 됐으므로 골목길 안에만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즐잡아 열 명이 넘었다. 학교가 과할 때쯤 되면 골목은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 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할 때는 한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담당해할까 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 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 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 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 깨엿 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찢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는 나를 흘깃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엿 두 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아 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한번은 가수 김현철이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중략) 그때 김현철이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 앤 골키퍼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년이 지난 후에도 김현철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괜찮아 -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 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 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감아 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도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 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 장영희, 「괜찮아」 -

2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극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영탄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반된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사한 구조의 어구를 활용하여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 대상이다.
- ② ㉠과 ㉡은 모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이질감을 느끼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를 예찬하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행동의 실천을 바라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에게 깨달음의 계기를 제공하는 대상이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설득을 발화 목적으로 하는 설득형 시조의 관점에서는 설득 전략을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논리적 전략에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 제시하기’, 비교 대상의 유사성을 드는 ‘유추하기’,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는 ‘인과 관계 활용하기’ 등이 있다. 수사적 전략에는 청자에게 권위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경전에 기대는 ‘권위에 의존하기’, 논의 대상을 흑 아니면 백으로 바라보는 ‘흑백 사고 활용하기’ 등이 있다.

- ① <제1수>에서 ‘두 분’의 ‘은덕’을 ‘하늘’에 빗대는 것을 보니, 효의 실천을 권유하기 위해 권위에 의존하기 전략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제7수>에서 사람이 ‘효경’과 ‘소학’을 배워야 ‘어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학문의 권장을 강조하기 위해 인과 관계 활용하기 전략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제8수>에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소’라고 하는 것을 보니, 올바른 행동을 권유하기 위해 흑백 사고 활용하기 전략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제9수>에서 ‘두 손으로 받치고’ ‘막대 들고’의 행동을 보니, 어른 공경을 권유하기 위해 사례 제시하기 전략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제13수>에서 ‘내 눈 다 매거든 네 눈 좀 매어’의 모습을 보니, 상부상조의 정신을 권장하기 위해 사례 제시하기 전략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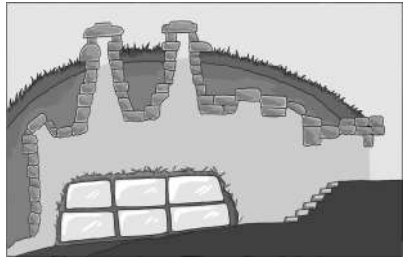
29. 다음은 (나)를 읽고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 중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치고 힘들 때 읽는 수필이 있다. 「괜찮아」가 그렇다. ㉠ 골목길 안에서 아이들과 놀던 작가의 어린 시절이 드러난다. 그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 그를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 그래서 ㉢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게다가, 그의 글은 반짝반짝 빛난다. 어려운 말도, 거창한 표현도 없다. 이 글에는 ㉣ 삶에 좌절하고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 준다. ㉤ 용기, 용서, 격려, 나눔, 부축의 의미를 담은 ‘괜찮아’를 되새기다 보면 나 역시 마음이 따뜻해진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상들은 더운 여름에 얼음을 이용하기 위해 석빙고를 활용하였다. 석빙고는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하여 내부를 냉각시킨 후 얼음을 저장한 냉동 창고로, 내부의 낮아진 온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를 통해 다음 해 가을까지 얼음을 보관하였다. 석빙고에서 얼음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자.



우선 석빙고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데에는 얼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너지는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평형을 이루려고 하고 에너지의 이동은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하는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는 변하지 않고 물질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주변으로 방출하는데 이때의 에너지를 숨은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는 주변에서 융해열을 흡수하고, 거꾸로 같은 양의 물이 얼어 얼음이 될 때는 같은 양의 응고열을 방출한다. 그러므로 같은 양의 0℃ 얼음보다 0℃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석빙고 안에서 얼음이 상태변화가 일어날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부의 얼음이 물이 되면서 주변 공기는 차가워지고, 이는 다른 얼음이 녹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생긴 물은 빨리 제거되어야 하므로 조상들은 석빙고 바닥을 경사면으로 만들어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였다.

내부를 차갑게 만들고 최대한 밀폐된 구조를 만들더라도 석빙고는 외부와 에너지 및 공기를 주고받아 내부의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상들은 석빙고 천장의 상단에 통풍구를 설치하였다. 공기와 같은 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밀도가 낮아져 에너지를 동반하여 위로 이동한다. 밀도가 낮은 공기가 상승하면 밀도가 높은 공기, 즉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석빙고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공기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나며, 상승한 공기는 아치형 천장의 움푹 들어간 공간을 통해 그 위의 통풍구로 빠져나가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게 된다. 더불어 통풍구에는 얼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 덮개들을 설치하였다.

또한 얼음이 최대한 녹지 않을 수 있도록 얼음과 얼음 사이에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하는 짚을 채워 넣어 보관하였다. 접촉하고 있는 두 물질의 분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데, 물질의 한쪽 끝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해당 부분의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 진동하게 되고 그 진동은 옆 분자를 다시 진동시키며 순차적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러한 에너지 전달의 정도는 물질마다 서로 다르다. 짚은 얼음에 비해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얼음끼리 쌓아 놓는 것보다 짚을 활용하여 쌓는 것이 얼음 보관에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짚은 스티로폼처럼 미세한 공기구멍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석빙고 외부에 흙을 덮어 내부로 유입되는 에너지가 잘 차단되도록 하였고 풀을 심어 태양의 복사 에너지로 인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였다. 또한 얼음을 저장하는 빙실은 온도 유지를 위해 주변 지반에 비해 낮게 만들었다.

석빙고는 조상들의 지혜가 집약된 천연 냉장고로, 당시 다른 나라의 장치에 비해서도 기술이 ㉡떨어지지 않는 건축물이다.

3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석빙고 외부의 풀은 내부의 온도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 ②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하기 전에 우선 내부를 차갑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③ 석빙고의 아치형 천장은 외부 공기를 이용하여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게 한다.
- ④ 빙실을 지반보다 낮게 만든 것은 석빙고 내부의 낮아진 온도를 지속하기 위해서이다.
- ⑤ 석빙고의 통풍구에 덮개들이 없으면 햇빛이 석빙고 내부로 들어와 온도를 높일 수 있다.

3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이 얼음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아 얼음을 녹이기 때문이다.
- ②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물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 ③ 물이 상태변화가 시작되어 석빙고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상태변화가 일어나 생긴 물이 얼음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⑤ 물이 내부 공기와 에너지 평형을 이루어 석빙고 내부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32. 윗글의 숨은열에 대해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물질의 상태변화가 일어날 때는 숨은열이 개입한다. 여름에 석빙고 안에서 물질이 (㉢)될 때 숨은열로 인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 주변 물질은 에너지가 (㉣)한다. 상태가 바뀌는 동안 물질의 온도는 (㉤) .

	㉢	㉣	㉤
①	융해	감소	유지된다
②	융해	감소	하강한다
③	융해	증가	유지된다
④	응고	감소	하강한다
⑤	응고	증가	유지된다

33. 윗글의 '석빙고(A)'와 <보기>의 '이글루(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추운 지방에서 이누이트족이 전통적으로 거주했던 얼음집인 이글루는 우선 눈 벽돌을 쌓아 올린 후에,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내부 공기의 온도를 높인다. 시간이 지나 공기가 순환하여 눈 벽돌이 녹으면서 물이 생기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눈 사이에 들어 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음 속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얼음은 에너지의 전달을 방해한다. 또한 물이 눈 벽돌 사이를 매우면서 얼어 만들어진 얼음 벽은 내부의 에너지 유출을 막는다.

- ① B의 얼음 벽은 A의 외부 흙과 달리 외부로의 에너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겠군.
- ② A의 질에 포함된 공기구멍과 B의 얼음 속 공기층은 모두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겠군.
- ③ A의 얼음 사이의 질과 B의 눈 벽돌 사이를 메운 물은 모두 외부와의 공기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겠군.
- ④ A와 B는 모두 공기의 밀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나겠군.
- ⑤ A와 B는 모두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출입구를 활용하겠군.

34.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의 실력은 평균보다 떨어지는 편이다.
- ② 곧 너에게 중요한 임무가 떨어질 것이다.
- ③ 이미 그 일에 정이 떨어진 지 꽤 되었다.
- ④ 아이는 잠시도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 ⑤ 배가 고프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밥상이 나왔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수 씨는 명절 앞두고 업자들한테서 들어오는 구두표 같은 **상품권**은 사양하다 못해 받아서는 자신은 가지지 **[A]** 않고 구두 많이 닳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눠 줬다. 그것도 평소에 사람 하나하나를 잘 지켜보지 않으면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 **구내식당** 아줌마들이나 여직원들 사이에서 만수 씨는 노총각에 사람 좋고 하니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공장 전체 인원 육백 명 중 여자는 서른 명도 안 되는데 그중 삼분의 일이 구내식당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여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났다. 만수 씨와 내가 전부터 사귀던 사이이고 둘 사이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를 만수 씨가 키우고 있다는 식이었다. 내가 탄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아기를 버리고 떠나갔다가 그 남자한테 싫증이 나자 다시 만수 씨에게 빌붙어 피를 빨아 먹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문이라는 게 원래 어처구니없는 것이

지만 해도 너무한다 싶었다. ㉡ **건드리면 더 커질 것 같아서 아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소문은 온 공장 안에서 기정사실이 되었다. 여자들 모두가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내 칫솔에 새똥이 묻어 있기도 하고 면도날이 내가 조리를 담당할 냄비 속에 들어 있기도 했다. ㉢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만수 씨를 찾아갔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많이 괴로우신 걸 잘 압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더 하니깐 어쩔 수가 없네요. 좀 잠잠해질 때까지 다른 데 가 계시면 어떨까요. 제 여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저 사는 동네 중학교 앞에서 ㉣ **분식집을 합니다**. 거기를 좀 도와주세요. 월급은 지금보다 많이 드리라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만수 씨는 그렇게 말했다. ㉤ **오래도록 생각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사실 나는 만수 씨를 좋아했다. 만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하고 있었다.

[B] 오빠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주방을 맡기라고 했을 때는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튀김, 어묵, 떡볶이 같은 아이들 주전부리 음식 파는 가게 크기라는 게 어른 세 사람만 서 있어도 딱 차는데 어떻게 사람을 더 들이라는 것인가. 칼과 도마, 싱크대는 여자들한테는 양보할 수 없는 고유 영역 같은 것인데 하루아침에 물러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떡볶이나 어묵에 무슨 솜씨를 부릴 일이 있는가. 어린 학생들 코 묻은 돈 받아서 월급을 주고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내가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오빠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적금 통장**을 꺼내 놓았다. 그동안 나온 월급을 모은 것이라며 건물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가게를 키워 가지고 제대로 된 식당을 해 보자고 했다. 이제까지 무슨 생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고 그다지 고맙지도 않았다.

[중략 줄거리]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의 음식 솜씨 덕분에 새로 차린 기사 식당은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IMF 이후 공장을 되살리려는 투쟁에 여자가 참여하면서 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이에 여동생의 남편이 만수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아니, 형님 다니던 회사가 형님이 게으르고 일 안 해서 망한 겁니까. 망해도 그렇지, 자본가라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든 그놈들이 형님네처럼 아무것도 없이 나갔겠냐고요. 지금도 홍콩이나 하와이 해변 같은 데 가서 빼돌린 돈 가지고 멍멍거리면서 잘살고 있어요.

[C] 처남이 착하다는 건 인정한다. 성실하기도 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 같이 해야 할 일은 같이 열심히 하겠지만 싸울 일은 싸워서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또 싸울 때도 상대를 제대로 골라서 싸워야지 제 편, 제 식구에게 피해를 입혀 가며 제 살 깎아 먹기 식으로 하는 건 나부터 용납할 수 없었다. 그냥 놔두니까 처남은 계속 주절주절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 어릴 때 굶기를 밥 먹듯 하던 때를 생각해 봐. 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 내 팔자가 그런 걸 뭐. 또 원망해서 뭐해? 그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

겠냐고. 부도내고 싶어 부도내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보통 사람 나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네.

㉔ 그런 건 내 알 바가 아니었다. 나부터 살길을 찾아야 했다.

-지금 저 주방에 있는 아줌마하고는 무슨 사이인 겁니까?

-진주 씨? 우리는 같이 싸우고 있어. 투쟁.

-뭐 때문에 투쟁하는데요? 누구를 상대로요?

-우리가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사장님이 투자자를 데리고 돌아오실 거야. 그럼 회사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채권단한테 빚도 갚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는 거지. 우리는 희망이 있어. 희망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런데 수민이 엄마가 저 아줌마하고 앞으로 어쩔 거냐고 자꾸 그러는데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지금처럼 일이 있으면 투쟁 현장에 가서 밥도 해 주고 옛날 회사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같이 가고 끝나면 여기 와서 바쁠 때 음식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하면 되지.

-우리 식당 하루 스물네 시간 돌아가는 뎀니다. 누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일했다 말았다 하고 월급은 사장보다 더 챙겨 가고 누구는 하루 스물네 시간 꼬박 일하고 있는데..... 수민이 엄마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다고 형님이 돈이나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집도 그렇지요. 지금 애들 자꾸 크니까 교육 문제도 그렇고 집을 옮겨야 되고 하는데 돈 생기는 데는 ㉕ 기사 식당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형님이 다 통장에 집어넣고 꼭 움켜쥐고 있다고.....

[D] -아니, 그건 아닌데. 여기 재료비하고 인건비, 월세 제하고 나서 또 우리 공장에서 같이 투쟁하는 식구들 먹고 자고, 각자 가족이 있으니까 최소한 앞가림은 해야 하고 그러느라고 다 썼지. 우리 공장 때문에 소송도 걸려 있고 거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말이지. 내가 뭘 쥐고 있겠어. 내가 장부에 다 기록해 놔.

㉕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이들이 좁아터진 집 안에서 열대야가 기상 관측 이래 신기록을 내고 있는 한여름에 온몸에 땀띠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울고 아내는 손이 불어 터지도록 설거지하고 일해서 번 돈을 엉뚱한 데 처넣어 왔다는 말이였다.

- 성석제, 「투명 인간」 -

3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주가 느끼는 만수에 대한 호감은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② 만수의 노력에도 진주에 대한 공장 사람들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다.
- ③ 만수는 공장이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투쟁을 계속하였다.
- ④ 만수 여동생의 남편은 식당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의 불공평함을 문제 삼았다.
- ⑤ 만수의 여동생은 불성실함 때문에 진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36.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주변 상황에 신경 쓰지 않는 '나'의 무던함을 보여 준다.
- ② ㉒: 질투와 괴롭힘으로 인한 '나'의 고통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 ③ ㉓: 상대가 제시한 대안이 '나'가 내심 바라고 있었던 내용임을 드러낸다.
- ④ ㉔: 이상적인 삶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상대에 대해 빈정거리는 '나'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⑤ ㉕: 공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37. ㉑~㉓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에서 조성된 인물 간의 긴장감은 ㉒에서 심화된다.
- ② ㉑로 인한 인물 간 유대감은 ㉓에서 반감된다.
- ③ ㉒에서의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㉓에서 인물 간의 갈등으로 전환된다.
- ④ ㉑, ㉓에서는 특정 인물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 ⑤ ㉒, ㉓와 관련된 갈등은 특정 인물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투명 인간」은 선량한 주인공이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물질 만능의 한국 사회로부터 어떻게 소외되어 가는지를 그린 장편 소설이다. 특히 주인공은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며 희생하다 결국 '투명 인간'이 된다. '투명 인간'이 된 주인공 대신 주변인들이 서술자로 등장하면서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런 서술 방식은 주인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들을 통해 주인공의 삶을 다각도에서 조명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 ① [A]의 '상품권'을 동료들에게 나눠 주는 모습을 통해 주인공의 선량한 성품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B]의 '적금 통장'을 통해 물질 만능의 한국 사회로부터 주인공이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D]의 '돈'의 사용처를 통해 주변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며 희생하는 주인공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A], [B]에서 주인공을 지칭하는 표현을 통해 주변인들이 서술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B], [C]에서 주변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주인공의 삶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숙향이 선녀들에게 말하기를,
 “천상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매우 크도다. 그러나 내가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초 가운데 부모와 헤어진 일과 장 승상 댁에서 악명을 입은 일은 더욱 망극하니, 차라리 죽어서 모르고자 하노라.”
 하니 그 선녀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소서. 그 모든 것이 이미 천상에서 마련하신 일이니 다시 고칠 길이 없나이다. 남자의 부모도 전생에 지은 죄로 남자를 잃고 간장을 썩이며 고행을 겪게 한 것이니, 어찌 한탄하리오. 장 승상 댁에서도 십년만 머물도록 정한 것이니, 그것도 한탄할 일이 아니옵니다. 또한 항아께서 사향이 남자를 모함한 것을 아시고 이미 상제께 아뢰어 벼락을 치게 했으며, 장 승상 부부와 모든 종들도 다 남자가 억울한 처지인 줄 알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승상께서 종을 이 물가에 보내어 남자를 찾아 모셔 오도록 명했으나 종이 남자를 못 찾고 돌아갔으니, 그것도 염려하지 마소서. 그러나 앞으로 두 번이나 죽을 액이 남아 있으니, 남자께서는 부디 조심하소서.”
 “무슨 액이 또 있을까?”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고, 또 낙양 옥중에 가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옵니다. 그런 후에야 태을선군을 만나 영화를 누릴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소서.”
 이에 숙향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고행도 생각하면 천지가 망극하거늘, 이제 남은 두 액을 어떻게 견디리오? 장 승상 부인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내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니, 도로 그리 가서 두 액을 면할까 하노라.”
 하니 그 선녀가 웃으면서 말했다.
 [A] “하늘이 벌써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남자 마음대로 할 수 없나이다. 이제 남자께서는 비록 돌로 만든 갓을 쓰고 무쇠 두명*에 들어가는 액일지라도 어찌 그 액을 면할 수 있겠나이까? 장 승상 댁과의 인연은 십년뿐이요, 거기 계시면 태을선군이 사는 곳과는 삼천삼백육십오 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군을 쉽게 만날 수도 없나이다. 또한 선군이 아니면 남자의 힘으로는 결코 부모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리이다.”
 숙향이 그 말을 듣고 탄식하며 묻기를,
 “선군이 인간 세상에 왔다니, 이름은 무엇이냐 하는가?”
 하니 선녀가 대답했다.
 “예전에 항아의 말쑤를 듣자오니, ‘이름은 선이요, 자는 태을이며, 낙양 땅 이위공의 아들이 되어 천하의 부귀공명을 누리리라.’ 하시더이다.”
 “똑같은 일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 왔다고 했는데, 나는 어찌 이렇듯 고행을 겪게 하고, 선군은 호화롭게 지내게 했는고?”
 “천상에 계실 때 남자께서 먼저 선군을 회롱했기에 남자의 죄가 더 무겁나이다. 선군은 상제께서 가장 사랑하시어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나, 항아께서 선군도 벌을 주어야 한다고 요청한 까닭에 상제께서 마지못해 선군을 인간 세상에 귀양 보냈나이다. 그러나 상제께서는 선군을

너무 사랑하시어 인간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나이다.”
 [중략 줄거리] 숙향은 온갖 시련을 겪지만 이선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다. 이후 황태후가 병이 들자, 병부 상서 이선은 선약을 구하기 위해 떠난다.
 병부 상서가 용왕께 사례한 후 선관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물가로 나오니, 용자가 벌써 붉은 조롱박 하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상서가 용자와 함께 그 박을 타고 가니, 노를 젓지 않는데도 화살처럼 빠르게 바다 위를 떠났다.
 얼마쯤 가다가 용자가 상서에게 말했다.
 “저 혼자 가면 아무 데도 걸릴 것 없이 쉽게 갈 수 있사오나, 여러 신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선계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지금 상공께서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진객이 되었사오니, 어디를 가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소서. 가는 곳마다 용왕께서 주신 공문을 보여 주고 가겠나이다.”
 이에 상서가 묻기를,
 “수궁에서는 용왕이 으뜸이라. 바로 수로로 가면 쉬울 터인데, 어찌하여 번거롭게 육지에 있는 나라들을 거쳐 가려 하는가?”
 하니 용자가 대답했다.
 [B] “수로로 곧장 가면 얼마나 좋겠나이까? 그러나 상제께서 그것을 아시게 되면 용궁에 큰 변이 일어나고, 각 지경을 맡은 신령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여러 나라를 지나면서 공문을 보여 주고 가야만 하나이다.”
 상서와 용자가 한 나라에 이르렀는데, 그 나라 이름은 ㉠ 회회국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똑바로 걷지 못하고 게처럼 옆으로 다녔으며, 왕의 이름은 경성이었다. 용자가 물가에 배를 대고 혼자 들어가 왕에게 공문을 드리니 왕이 공문을 보고 물었다.
 “함께 가는 사람이 태을성인가?”
 용자가 대답하기를,
 “그러하옵니다.”
 하니 왕이 즉시 공문에 날인해 용자에게 돌려주었다. 왕이 용자와 함께 물가로 나와 상서에게 반갑게 인사했으나, 상서는 그 왕이 누구인지 몰라 공경하기만 하더라.
 용자가 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후 상서를 모시고 또 한 나라에 가니, 그곳은 함밀국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화식은 먹지 않고 꿀만 먹고 살며, 왕의 이름은 필성이었다. 용자가 공문을 드리니, 왕이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태을성을 모시고 가는데, 이 앞이 제일 험하니 조심하라.”
 하고 날인한 후 공문을 돌려주었다.
 또 한 나라에 가니, 그곳은 유리국이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 사람과 비슷했으나 생선처럼 비린 것을 먹지 않았으며, 왕의 이름은 기성이었다. 용자가 왕에게 공문을 드리니 왕이 화를 내며 묻기를,
 “선계는 인간 세상과 다른데, 어떻게 진객이 마음대로 이곳에 들어왔는가?”
 하고 공문을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용자가 사정하며 말하기를,

“태을성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국의 병부 상서가 되었는데, 황제의 명을 받들어 ㉠ 봉래산의 개연초를 얻으러 가다가 우리 ㉡ 용궁에 왔나이다. 그리하여 소자가 모시고 가는 길이었으니, 저의 낯을 보아 허락해 주소서.”
 하니 왕이 말하기를,
 “이번엔 통과시켜 주겠지만, 다시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말라.”
 하고 마지못해 날인하고 공문을 돌려주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 두명: 물을 많이 담아 두고 쓰는 큰 가마나 독.

3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용자는 상서에게 공문의 사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
- ② 용자는 상서가 원하는 곳까지 혼자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 ③ 장 승상은 사향이 숙향을 포함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숙향을 찾았다.
- ④ 필성은 용자에게 일어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 ⑤ 선녀는 갈대밭과 낙양 옥중에서 곤욕을 치른 숙향의 어리석음을 질타하였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용왕의 조력을 통해 상서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② ㉠은 천상계 존재인 태을성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왕이 지키는 공간이다.
- ③ ㉡은 상제의 권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
- ④ ㉠과 ㉡은 누구에게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 ⑤ ㉡은 용자와 상서가 육지의 ㉠을 경유하여 향하는 곳이다.

41.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물의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B]는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의 다급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는 유사한 상황을 나열하는, [B]는 여러 인물의 발화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숙향전」은 이질적인 두 개의 서사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두 남녀 주인공의 지상에서의 삶에는 천상의 죄업이 공통으로 전제되었지만 그 죄업의 책임은 여성에게 두고 있다. 숙향이 지상에서 겪은 고난의 과정은 천상의 죄업에 대한 징벌적 의미이다. 이러한 숙향의 서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세에 놓인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이선의 서사는 입신양명이라는 당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려는 과정에는 환상성이 드러난다. 이 같은 이질적 서사는 당대 인식에 내재된 남녀 차별적 시선이 개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① 상제가 이선을 인간 세상에 보냈다는 것에서 입신양명이라는 당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이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선녀가 숙향의 죽을 액을 하늘이 정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숙향의 고난의 과정이 징벌적인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군.
- ③ 이선이 조롱박을 타고 바다 위를 떠가거나 신이한 세계의 인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선의 서사는 환상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④ 상제가 선군을 마지못해 귀양 보낸 것과 달리 숙향은 고행을 견도록 한 것에서 천상의 죄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이선이 호화롭게 지내는 것과 달리 숙향은 여러 차례의 죽을 위기에 처한다는 것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세에 놓인 여성의 현실적 상황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A]
 └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 [B]
 └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 [C]
 └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께 하리라
 - 이육사, 「광야」 -

* 광음: 햇빛과 그늘, 즉 낮과 밤이라는 뜻으로,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

(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 [D]
 └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 [E]
 └

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 천연히: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이.

43.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원시성을 지닌 태초 광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B]: 인격화된 대상의 행위를 추측하여 광야의 신성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C]: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여 광야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순환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모습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E]: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위적이지 않은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를 각성하게 하는 존재이며, ㉡은 화자를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② ㉠은 공간의 황폐함을 심화하는 존재이며, ㉡은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대상이다.
- ③ ㉠은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이며, ㉡은 공동체의 인식 전환을 일으키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며, ㉡은 화자가 애상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이며, ㉡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의 시간 양상은 화자의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화자가 미래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시에서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순방향의 흐름을 보인다. 이때 화자는 현재의 결핍을 인식하고 과거로의 회귀 대신 발전된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 한다. 화자가 과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과거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화자는 미래에 대한 신뢰 없이 과거의 공간을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화자의 과거 회상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과거 공간이 존속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가)의 화자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것을 통해 발전된 미래를 향한 희망을 확인하여 극복의 자세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화자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결핍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③ (나)의 ‘소녀’, ‘소년’, ‘들길’이 존재하는 고향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고향을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나)의 ‘잔광’이 부시고 ‘별’이 뜨는 마을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마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나)의 ‘마을’을 ‘있다’로 표현하는 것은 마을의 모습이 존속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